

광주 금 2·전남 금 2...전국장애인체전 '출발 굿~'

광주 이수연 육상 여자 800m·정봉기 수영 자유형 200m 우승 전남 이미옥 여자 창던지기·론볼 단체전 혼성 4인조서 금메달

광주-전남선수단이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첫 날 금메달을 수확하는 등 순조롭게 출발했다.

광주 선수단은 20일 열린 육상과 수영에서 각각 금메달 1개씩을 추가했다.

이수연이 육상 여자 800m T20(동호인부)에서 2분53초78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고, 정봉기가 수영 남자 자유형 200m S2(선수부)에서 4분13초35의 기록으로 값진 금메달을 획득했다.

수영에서는 한준서(남자 자유형 200m S4 선수부), 여운성(남자 자유형 200m S12 선수부), 오명진(여자 자유형 200m S14 동호인부), 남자 계영 단체전 400m S14(동호인부)에서 각각 동메달을 추가했다.

사이클에서는 박영관이 남자 트랙 독주 1km C3(선수부)에서 1분42초412로 2위에 올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8강에서 부상을 상대로 67-37 대승을 거두며 광주시 농구팀 최초로 준결승에 진출한 지적농구는 21일 강호 경기도와 결승전출을 다룬다.

전남선수단도 첫날 개인·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수확했다.

전남은 이날 이미옥이 육상 필드 여자 창던지기 결승에서 31.23m를 던져 김하나(21.49m 충남)를 따돌리고 금메달을 따냈다.

대회에서 3관왕을 노리는 이미옥은 다관왕을 향한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이미옥은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원반던지기, 창던지기, 포환던지기 3관왕 주인공이다.

론볼 선수단은 안동재활원에서 열린 혼성 4인조(동호인부) 결승에서 부산에 4-3, 역전승을 거두고 단체전 첫 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밖에 육상 트랙에서는 강수빈(여자 800m T20, 동호인부), 나현철(남자 포환던지기), 변경호(수영 S14 여자 자유형 200m, 동호인부) 차건우(남자 자유형 200m), 이지(여자 평영 50m), 사이클 남자 트랙 독주 1km 등에서 값진 은메달 6개를 수확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혼성 4인조(동호인부)에서 금메달을 딴 전남 론볼 선수단.



육상 여자 800m서 우승한 이수연.

한국 선수 LPGA 통산 200승 보인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정규대회인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본 대회를 앞두고 19일 LPGA 인터내셔널 부산에서 공식 포토콜 행사가 열렸다. 사진은 기념 촬영하는 박성현(왼쪽부터), 대니얼장, 장하나, 고진영, 한나 그린. /연합뉴스

오늘 부산서 BMW 챔피언십 개막 한국 49명 출전 우승 가능성 커 고진영 LPGA 투어 사상 첫 15라운드 연속 60대 타수 주목

부산 기장군의 LPGA 인터내셔널 부산(파7·6천726야드)에서 21일 개막하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에 골프팬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하면 LPGA 투어 통산 한국 선수 200승째가 된다.

박인비(33)와 고진영(26), 박민지(23)가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 1라운드 경기를 함께 치른다.

이번 대회 1라운드 조 편성을 보면 박인비와 고진영, 박민지는 21일 오전 10시 12분에 1번 홀을 출발한다.

현재 세계 랭킹 2위 고진영과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인비, 이번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6승을 거둔 박민지의 동반 플레이는 대회 첫날 하이лайต์가 될 전망이다.

고진영이 이번 대회 1라운드에서 60대 타수 성적을 적어내면 LPGA 투어 사상 최초로 15라운드 연속 60대 타수를 기록하게 된다.

고진영 외에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2005년에 14라운드 연속 60대 타수를 기록한 바 있다.

이 대회 출전 선수 84명 중 한국 선수가 절반이 넘는 49명이라 한국 선수 우승 가능성은 꽤 큰 편이다.

2019년 이 대회에서 우승한 장하나(29)는 오전 10시 23분에 에리아 주타누간(태국), 해나 그린(태국)과 한 조로 역시 1번 홀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이 대회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열리지 못해 장하나가 '디펜딩 챔피언'이다.

9시 39분에 시작하는 최혜진(22), 박성현(28), 리디아 고(뉴질랜드) 조와 9시 50분 출발인 전인지(27), 김세영(28), 박현경(21) 조도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중 입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광주시 장애인운동부 김정길·이지석 2021 체육발전 유공 정부포상 수상

광주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김정길(탁구), 이지석(사격)이 최근 서울 더플러호텔에서 열린 2021년 체육발전유공 정부포상을 받았다.

김정길은 체육발전 유공자로서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상했다.

그는 2006년 탁구선수로서 입문 2010년부터 국가대표로서 3번의 패럴림픽, 3번의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각종 국내외대회에 출전해 꾸준히 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도쿄패럴림픽에서도 은메달을 따내 패럴림픽에서 3연속 메달을 획득했다.

이지석은 '극복상'을 수상했다.

2003년 장애인사격에 입문해 2006년부터 장애인사격 국가대표선수로 패럴림픽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각종국내대회에 출전해 국위를 선양했다. 2010년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상한 바 있다.



김정길

이지석

사지마비라는 중증장애를 극복함으로써 중증 장애인들의 롤모델이 되고 2015-2016년에는 대한패럴림픽 위원회 선수위원장을 지냈다.

한편 김정길, 이지석은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광주시대표로 출전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디펜딩 챔프 밀워키 NBA 개막전 브루클린 완파

커리 맹활약 골든스케이트도 승리

미국프로농구(NBA) 디펜딩 챔피언 밀워키 벅스가 2021-2022시즌 개막전에서 우승 후보 브루클린 네츠를 제압하고 기본 좋게 첫발을 내디뎠다.

밀워키는 20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피어셔브 포럼에서 열린 2021-2022 NBA 정규리그 개막전 홈 경기에서 브루클린을 127-104로 물리쳤다.

지난 시즌 47년 만에 NBA 챔피언결정전에 진출, 피닉스 선스를 따돌리고 1971년 이후 50년 만의 우승을 차지했던 밀워키는 당시 챔피언결정전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한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예전한 기량을 뽐낸 가운데 개막전 승리를 쟁겼다.

아데토쿤보는 32점 14리바운드 7어시스트에 블록 2개, 스틸 하나를 곁들이며 펄펄 날았다.

시즌을 앞두고 30개 구단 단장 설문조사에서

72%의 지지를 얻어 우승 후보 1위에 올랐던 브루클린은 '삼각 편대'의 한 축인 카이리 어빙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로 전력에서 배제된 가운데 첫 패를 떠안았다.

지난 시즌 동부 콘퍼런스 정규리그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으나 2라운드에서 밀워키에 3승 4패로 밀려 탈락한 브루클린은 새 시즌 첫 만남에서 설욕하지 못했다.

로스앤젤레스의 스테이플스 센터에서는 원정팀 골든스태츠 워리어스가 '호화 군단' LA 레이커스를 121-114로 꺾었다.

지난 시즌 득점왕에 빛나는 간판스타 스테판 커리가 21점 10리바운드 10어시스트로 시즌 1호 트리플더블 주인공이 되며 승리를 이끌었다.

조던 폴이 3점 슛 4개를 포함해 20점을 넣었고, 마이애미 히트에서 뛰던 이번 시즌 합류한 파워 포워드 네마냐 비엘리치가 벤치에서 더블더블(15점 11리바운드 4어시스트)을 작성해 쓸쓸하게 뒷받침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베놈 2: 렛 데이 비 카니지
2관	베놈 2: 렛 데이 비 카니지
3관	베놈 2: 렛 데이 비 카니지
4관	툰, 보이스
5관	툰
6관	툰
9관	베놈 2: 렛 데이 비 카니지
7관 씨네커롬	라스트 듀얼: 최후의 결투, 보이스 왕과 주근깨 공주, 기적
8관 씨네커롬	라스트 듀얼: 최후의 결투 007 토 팀 투 다이, 동백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 11시 음악산책 7
박은식의 피아노의 숲
일시 : 2021.10. 27.(수) 11: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2

GAC기획공연 포시즌
실내악 시리즈_현악 4중주
일시 : 2021. 10. 30.(토) ~ 11. 06.(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 062-613-8235